

어린이와 여성 범죄로부터 지켜준다더니... 'SOS 국민안심 서비스' 부실 서비스 됐다

저소득층 아동 'U-안심서비스' 소리 없이 종료

정부가 범죄로부터 어린이·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 'SOS 국민 안심 서비스'가 부실 서비스로 전락했다. 저소득층·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해 추진했던 서비스를 돌연 중단, 범죄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시키는가 하면, 미성년자·여성들을 위한 서비스는 홍보 부족으로 걸뚝고 있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가 'SOS 국민 안심서비스'의 하나로 추진했던 'U-안심서비스'를 지난해 말 종료했다. 예산 미확보 및 기기

품질 불량 등을 내세웠지만 애초 취지를 고려하면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힘든 저소득층·소외계층의 안전을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SOS 국민안심서비스'는 ▲저소득층을 위한 U-안심서비스 ▲미성년자와 여성 성인들을 위한 원터치 SOS 서비스 ▲112 긴급신고 앱 등 3가지로 나눠 추진중이다.

U-안심서비스의 경우 등·하굣길 어린이 보호를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서비스로, 긴급상황시 단말기

긴급버튼을 누르면 위치 정보가 부모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되며 통화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애초 휴대전화 구입이 부담이 되는 2만명의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용 단말기와 이용료 등을 무료로 지원해 이용토록 했지만 이번 사업 종료로 나머지 아이들은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교육부도 업무를 이관,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추진될지도 미지수다.

대안 학교 폭력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가 끊이지 않

는데다, 수십만원의 휴대전화 가입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미흡한 판단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의 안전을 저버렸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의 학교폭력 등 '4대악' 척결 입장과는 배치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치밀한 검토 없이 진행되면서 빚어진 기기 품질 불량 등의 부작용도 한몫을 했다.

또 성인 여성과 미성년자들의 안전을 위해 추진중인 '원터치 SOS 서비스'도 홍보 부족으로 가입률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광주·전남 지역 가입자는 각각 3만

2442명으로 대상자인 초·중·고등학교생과 성인 여성 180만3000여명의 1.8%에 불과하다.

휴대폰 단축키를 3초간 누르면 112와 통화가 연결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라도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낄 경우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의견만 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한 뒤 교육부도 다시 이관해 추진할 방침으로, 중단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전남 반려견 7만마리 시대 도로횡단 개 치고 가면 뺑소니?

"재물손괴 적용 안 돼" 광주서부경찰 불입건

반려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 광주·전남지역 반려견도 7만여 마리에 이르면서 차량을 피해 도로를 아슬아슬하게 건너는 가하면, 횡단하다 차랑에 치여 도로에 쓰러져 있는 반려견을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이 이런 사고를 당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보행 신호가 켜지지 않은 횡단 보도를 건너던 반려견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광주서부경찰은 9일 도로를 건너던 진돗개를 치어 중상을 입힌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홍모(42)씨에 대해 적용할 혐의를 찾지 못해 불입건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전 11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양동발산교 인근 교차로에서 양동시장 방향으로 가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A(64)씨의 진돗개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반려견 주인인 A씨 신고를 받고 인근 블랙박스를 통해 홍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A씨 5m 뒤에서 횡단 보도를 건너는 반려견을 친 사실을 확인했다. 홍씨는 신호를 받고 이동 중이었다. 반려견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다리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홍씨는 경찰에서 "부딪힌 개도 멀쩡해 보였고 목줄도 없어 주인 없는 떠돌이 개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피해자가 사람이 아니라라는 점을 들어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입건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A씨는 "뺑소니는 만류 피해 반려견을 '물건'으로 보고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힘들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다만, 차량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한 만큼 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 일정한 보상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그러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인이 목줄을 착용시키고 외출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피해 보상은 줄어든 것으로 예상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혁신학교 확대"

신년 기자회견 "재선 도전 시민사회 결정 따를 것"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사진)이 "빛고을혁신학교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싶다"며 오는 6월 교육감 재선 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후보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결정의 결정을 무시할 수 없다"며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9일 교육청 상황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을 설명했다. 장 교육감은 예산 증폭 지원과 부실 운영 등으로 논란이 됐던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 빛고를 혁신학교, 광주희망교실 등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추진이 일선 학교에서 주목구구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에 대해 "현 정부가 일반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치마킹해 전국화하고 있다"며 "대상 학교를 81개교에서 103개교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의회에서 예산 과다지원과 부실 평가 논란이 일었던 혁신학교 사업도 "예산집행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고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한 지적을 잘 알고 있으며 뼈아프게 인식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보완해 혁신학교의 장점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실력광주 위상 추력에 대해 "광

주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진보교육감 체제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던 학생들의 학력 저하 우려를 일축했다.

장 교육감은 "소통이 부족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과 시민, 학부모, 학생들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남은 임기에도 광주교육의 모든 역량을 모아 학교문화 혁신에 전념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정렬기자 jwpark@kwangju.co.kr



도시락 업체 위생점검

광주시 북구청 공무원들이 9일 광주시 북구 양산동 도시락제조업체에서 도시락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북구는 이날 말까지 도시락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운전자 골라 고의 교통사고 돈 뜯어 20대 상습공갈범 구속영장

여성 운전자들만을 골라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20대 상습공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동부경찰은 9일 이모(22)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7시10분께 광주시 동구 서석동

서석초교 앞길에서 사행 중인 구모(여·37)씨의 승용차에 자신의 손·어깨 등을 고의로 갖다댄 뒤 합의금 명목으로 운전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9회에 걸쳐 37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CC-TV가 미설치된 좁은 길에서 운전이 미숙한 여성 운전자들

만을 골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임신한데다, 장애를 가진 형까지 돌보아야하는 처지여서 생활비가 부족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씨는 범행 기간 중 치킨 가게와 식당 음식 배달 일을 하면서 한 달에 100만~160만 원 가량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씨는 아내가 임신하기 이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씨의 진술과 달리 형은 식당 일을 하는 어머니가 함께 돌봐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이석채 전 KT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석채(68) 전 KT 회장에게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 검사)는 이 전 회장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직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회사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대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의 배임 액수는 100억원대, 횡령 액수는 수십억원대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 'OIC랭귀지비주알'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주식을 비싸게 산 혐의, '사이버 MBA'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 스크린광고 사업체 '스마트에드몰'에 과다 투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연뉴스

목욕탕 사우나 돌며 무면허 운전·성형시술 60대 女 '덜미'



○목욕탕 등지를 돌며 불법 운전과 성형 시술을 해 온 60대 여성이 경찰에 잡혔다.

○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여·65)씨는 지난 2008년 4월 말 광주시 서구 상무동 S사우나 마사지실에서 박모(여·43)씨에게 170만원

을 받고 주름제거, 쌍꺼풀, 눈 밑 지방제거 수술을 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여성들에게 무면허 시술을 했다는 것. ○김씨는 개인전을 열기도 했던 작가로, 전에도 불법 운전 시술 혐의 등으로 수차례 붙잡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판명.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입학문의 ▶ 062)605-1114, 1027

2014 학년도 광신대학교 편입생 모집

학교설립 60주년 (1954~2014)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유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취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학과	6	-	-
	국제한국어교육학과	4	1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4	-	-
사범	유아교육과	1	1	2
예능	음악학과 (피아노, 성악, 현악, 관·타악, 지휘, 오르간, 작곡, 클래식기타, 교회음악)	8	-	-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포크, 일렉),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5	-	-
	총계	28	2	2

■전형일정 ·원서접수 : 2014. 1. 6(월) ~ 17(금)
·전형일 : 2014. 1. 23(목) 오후 2시

www.kwangshin.ac.kr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지사로 36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산구 381-0061 목포(삼화) 274-5987
서구 352-7788 목포(건영) 243-7463
남구 676-7719 순천 744-8605
북구 512-7998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